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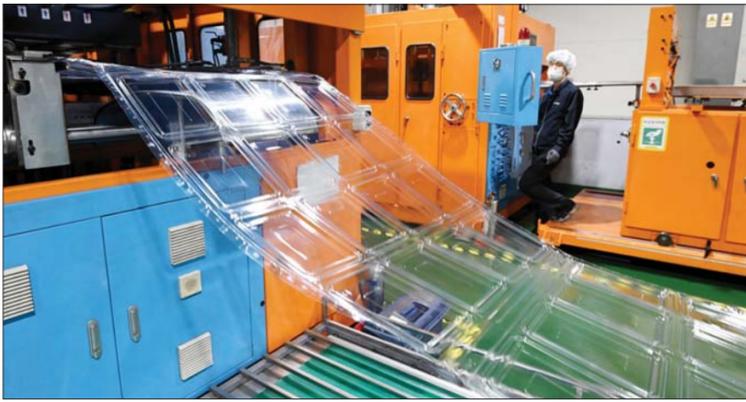
원료 끊기고 물류비 급등...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흔들'

주요소재 가격 두 배 이상 올라
고유가·고환율 겹치며 수익 악화
“韓 산업, 공급망 확보 중요해져”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내 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항공유와 액화천가스(LNG) 등의 가격은 두 배가량 상승했으며 석유화학제품 기본 소재인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 전체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소재 가격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나프타 가격은 배럴당 68.87달러에서 129.72달러(27일 기준)로 두 배가량 올랐다.

나프타 공급 문제는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원료 부족으로 지난 23일 LG화학이 나프타분해설비(NCC)인 전남 여수 2공장을 섰다(가동 중단)했다. 연간 에틸렌 80만톤을 생산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재고가 급감하면서 포장 용기 및 종량제 봉투 등 1회용품 포장재 품귀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7일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뉴스시

하는 핵심 설비가 멈추면서 플라스틱과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산업 전반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비닐, 합성섬유, 세제 등 일상용품의 70% 이상을 만드는 기초 원료로 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사재기 논란도 이 때문에 발생한 것

이다.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도 헬륨 공급 불안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원자가 작고 가벼운 헬륨은 반도체 공정 장비 내부의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한국은 2025년 기준 헬륨의 64.7%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가스(LNG) 생산시설을 공격하면서 가스와 함께 추출되는 헬륨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헬륨의 가격도 중동전쟁 이후 5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체 거래처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고유가·고환율로 국내 항공업계도 비상 경계를 선포하는 등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은 전쟁 전 갤런당 92.67달러에서 최근 179.50달러(3월 둘째주 평균)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비용 급증에 따른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노선 운항 축소에 나선다. 항공사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가운데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LCC 5곳이 일부 노선 비운항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다수 항공사도 비운항을 검토 중이다.

완성차 업계도 물류비 상승과 부품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석유화학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만큼 전쟁 장기화로 생산 일정과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완성차와 부품 업체는 현재까지 에틸렌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에틸렌 원료 부족으로 플라스틱·고무 부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는 선박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물류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비축된 물량으로 버텼다면 앞으로는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 산업 전반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편서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카대표급 카드혜택의 시작

그라운드를 가리지 않는
ALL라운드 혜택
KB ALL 카드

YOU연한 라이프에
YOU유한 맞춤 혜택
KB YOU Prime 카드

꼭 필요한 교육
NEED에 집중 혜택
KB NEED Edu 카드

□ KB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3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2천원) □ KB YOU Prime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CB))) 3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2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CB))) 2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 NEED Edu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2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일반카드(국내외겸용(MSA)) 2만6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9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1만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외겸용(MSA)) 2만1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1천원) ■ 연회비: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회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연체 시 가내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율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연체 시 가내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거래기간의 유지자율부 수수료율 적용 - 그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법상 상사판정이율과 상호금융 기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구회기간 사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재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결제원(오지11)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6-C2b-02152호 (2026.02.13 ~ 2027.02.12)

KB 국민카드

딥시크 사례 재조명... 수요증가 구조 반복

» 1면 '터보퀀트 메모리위가...'서 계속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를 비롯한 저비용 AI 기술은 AI 사용 장벽을 낮춰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이번 급락을 과도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 AI 비용 절감이 수요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UBS는 지난 27일 “최근 주가 급락은 메모리 업종의 매력적인 진입 기회”라고 평가하며 SK하이닉스에 대한 ‘최선호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과거 사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시장은 AI 모델 비용을 크게 낮춘 ‘딥시크’ 등장 당시에도 시장은 수요 감소를 우려했지만 이후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

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비용이 낮아질수록 AI 도입이 확산되며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터보퀀트 충격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해석하는 시장 시각 차이가 주가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와 AI 수요 확대 기대가 맞서는 가운데, 실제 수요와 투자 지표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는지가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확산 속도가 메모리 수요를 좌우할 것”이라며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지, 확대를 부르는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경기둔화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실로”

» 1면 '사태 장기화면...'서 계속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중동상황 전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했고, 파월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릴 수 있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지속 기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한국 역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복합적인 경제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자산시장 급락과 함께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어서다.

환율 상승은 유가 상승과 맞물리며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 원유를 달러로 수입하는 구조상 환율이 오르면 같은 유가 수준에서도 국내 도입 가격이 상승한다. 자산시장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리 부담이 겹칠 경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단기에 마무리될 경우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지만, 장기화될 경우 유가를 중심으로 물가와 금리 경로가 다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경기 둔화까지 겹칠 경우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